

제주올레·해파랑길... “탁트인 바닷길서 힐링”

야외여행으로 걷기여행 50.4% 선호
‘제주올레’ 3년 연속 걷기여행길 1위
자연 뿐 아니라 골목길 투어도 매력
오륙도~팡끝마을, ‘납파랑길’ 인기

‘사람 모이는 곳은 피하고, 탁 트인 자연을 즐기고, 짝 짝여진 일정한 대산 나만의 여유를 누린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행의 ‘뉴노멀’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런 행동강령으로 압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침을 두루 충족하는 여행 테마가 ‘걷기여행’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1일 발표한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 시대 선호하는 야외여행지로 걷기여행길을 꼽은 응답이 50.4%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한해 인기 높았던 걷기여행길도 조사했다. 걷기여행 사이트 ‘두루누비’에 소개된 총 585개의 걷기여행길 중 제주올레, 부산갈매길, 한라산둘레길, 납파랑길, 해파랑길 등이 지난해 ‘두박이여행족’에게 사랑받은 길로 꼽혔다.

●자연과 함께 시티투어도, 부산갈매길

제주올레는 걷기여행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모델코스 같은 곳이다. 2018년 실태조사 때부터 3년 연속 가장 많이 찾은 걷기여행길 1위를 지키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2007년 가장 먼저 생긴 시흥-광치기 해변까지의 1코스부터 가장 최근 개통한 하도-종달 해변까지의 21코스까지 총 25개의 길로 이루어졌다.



해파랑길 8코스의 해안길



한라산둘레길의 돌오름길

제주올레의 매력은 10년 넘게 꾸준히 개발되면서 여행의 재미를 주는 요소가 코스마다 다양하다는 점이다. 해안선 따라 여유롭게 걷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오름의 제법 가파른 비탈을 숨가쁘게 오르는 곳도 있다. 자연경관 뿐 아니라 오밀조밀한 골목길을 누비면서 현지의 일상을 살며시 느껴볼 수도 있다. 지역맛집, 문화체험 등도 코스별로 다양하다.

부산갈매길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다. 2009년부터 조성해 현재 총 302km에 걸쳐 9개 코스, 21개의 구간이 개통했다. 부산의 지역적 특색인 사포지향(바다, 강, 산, 온천)을 코스에 담아 해안길, 숲길, 강변길, 도심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른 걷기여행길과 달리 도심 시티투어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길만의 특징이다. 부산진시장, 국제시

2020년 인기높았던 걷기여행길	
순위	길
1	제주올레
2	부산갈매길
3	한라산둘레길
4	납파랑길
5	해파랑길
6	중문둘레길
7	감파랑길 및 가름길
8	강동그린웨이걷기대회 코스 지리산둘레길
9	경기옛길 삼남길 순례길 빛의 길 김대건길
10	관악산둘레길

*조사 |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소개 걷기여행길 대상 (중복응답)

장(3코스), 감천항(4코스), 정거생태마을(5코스), 상현마을(7, 8, 9 코스) 등 부산이 지나온 격동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여러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남도유배문화와 순례 자원, 납파랑길

제주올레가 해안선을 따라 제주도를 크게 도는 모양이라면,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주요 지점을 연결한 원형 길이다.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지역에 80km 걸쳐 조성했는데 일제강점기 병참로나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운송로 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공원에 조성한 길답게 사려니숲, 서귀포 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등 다양한 식생의 원시림과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납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의 팽끝마을까지 한반도 남쪽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길이다. 90개 구간, 1470km에 달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 개통했다. 구간별로 남도문화길, 남도낭만길 등 5가지 주제의 길이 있다. 남도문화길은 장흥에서 강진, 완도, 해남까지 구간으로 남도 유배문화와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다. 남도낭만길은 여수에서 순천, 보성, 고흥으로 이어진 길로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해 낭만을 체험할 수 있다.

납파랑길이 한반도 남쪽 해안선으로 이루어졌다면, 해파랑길은 동해안에 조성한 걷기여행길이다. 역시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올라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의 750km 길로 이루어졌다. 10개 구간 50개 코스인데, 동해 일출, 화랑순례, 관동팔경, 통일기원 등 4개 주제로 길을 나누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제주올레길 10코스에 있는 송악산. 유채꽃 명소로 104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화산지형의 기암절벽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이 일품이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조선제주 '블루밍 J' 봄 패키지
조선호텔엔리조트가 운영하는 럭셔리 리조트형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가 제주

봄 풍광을 만끽하는 ‘블루밍 J’ 패키지(사진)를 진행한다. 향기 테라피와 미식여행 등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 봄 패키지다. 디럭스 객실 1박과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에서의 조식 혹은 런치, 시그니처 향 ‘더 모먼트’의 J 디퓨저 또는 J 캔들 등으로 구성했다. ‘블루밍 J 고메’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루브리카의 커피 런치 세트,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봄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 2잔이다.

승우여행사 '24박25일 전국일주' 진행



출발할 수 있는 ‘국내 전국일주 상품’(사진)을 출시했다. 새 전국일주 여행은 제주

승우여행사는 지난해 여행업계 최초로 선보인 전국 일주 여행 ‘대한민국 팔도유람 24박 25일’을 보완해 새로 전국 어디서

도에서 시작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울릉도까지 25일간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아보는 여정이다. 짐이 많은 장기 여행의 특성을 고려해 편하게 공항을 오가도록 홈픽업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일정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여행으로 1인당 475만원부터 판매한다. 상반기 출발일은 4월 6일, 5월 4일, 6월 1일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아웃도어 “영하이커의 발을 잡아라”

K2 ‘플라이하이크’, 그래핀폼 적용해 쿠셔닝 탁월
코오롱, 투습·방습 높은 스니커즈 ‘무브’ 선보여



초경량 하이킹화 ‘플라이하이크 큐브’를 선보이고 있는 K2 모델 수치. 사진제공 | K2

자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K2가 선보인 ‘플라이하이크 큐브’는 2018년 출시 후 38만 켤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플라이하이크의 신제품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하이킹화가 콘셉트다. 신발 중창(미드솔)에 폼의 물질로 불리는 고탄성 그래핀폼과 K2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플라이폼을 이중으로 적용해 쿠셔닝이 뛰어나다.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을 적용해 가벼울 뿐 아니라 방수, 투습, 건조 기능 역시 탁월하다. 가벼운 산행부터 일상에서까지 신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 2주 만에 1만 켤 가까이 판매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일찌감치 1차 재주문에 들어갔다.

블랙야크의 등산화 ‘야크343 DGTX’는 산행 시 필요한 움직임 사이클에 맞게 개발한 스마트폼이 삽입돼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다.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한 인솔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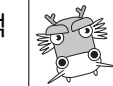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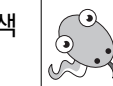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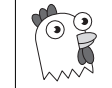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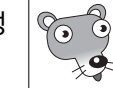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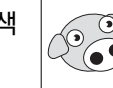
코오롱스포츠도 뽀티화에서 영감을 얻은 아웃도어 스니커즈 ‘무브’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 고어텍스 3레이어 안감을 사용해 투습, 방수 기능이 뛰어나며 비브람의 메가그립 아웃솔로 접지력을 높였다.

네파가 선보인 ‘스피릿 고어텍스’는 편안한 착용감과 핏을 제공하는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 기술력이 적용돼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우수하다. 라이트 포스 브이 아웃솔이 최상의 접지력을 선사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2일(금) 음력: 1월 29일 문: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박: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박: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박: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박: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권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신중하라.	한낮의 양측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3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광고국장 이숙옥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